

## 세계화시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시민교육적 과제

채진원 (Chae, Chin-won)\*

(E-mail : ccw7370@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13년 3월 16일

논문심사일 : 2013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5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현직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세계화시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시민교육적 과제\*

### <국문요약>

이 글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언제부터인가 건강한 시민육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인간형을 배출하는 취업양성 교육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글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대학의 기원과 대학교육의 변천사를 통해, 즉 중세 대학이후 현재까지 포기되지 않는 순수학문주의와 도구적 실용주의간의 팽팽한 긴장을 통해 대학의 사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현대의 대학은 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제기되는 새로운 지구 통치양식인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국제정치이론의 한 사조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 패러다임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학 시민교육의 맹아적인 사례를 하버드 대학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찾아보고, 그것의 실천 가능성과 유의미성을 검토한다.

**[ 주제어 ]**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이념, 글로벌 시민성, 시민교육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B00003)

## I. 서론 : 문제제기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어느 새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이 학문탐구와 진리의 전당 그리고 지성의 공간으로서의 목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목적과 결과가 전도되는 효용극대화 논리가 대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취업이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둔갑한 나머지 대학의 중요한 목적인 학문탐구와 교육 및 봉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언제부턴가 대학 캠퍼스에서 공무원 시험과 외국어 강좌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어디에 누가 취업하고 어느 시험에 누가 붙었다는 플래카드가 학교, 학회, 동아리, 동문회 이름으로 내걸리게 되었다. 대학은 점차 취업을 향상에 혈안이 되어 가고 있으며, 학생은 점점 학점관리, 전공보다는 토익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전문 직업인, 지식인을 양성하는 전문 취업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대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대학의 정체성 문제는 현대적 의미의 대학이 처음 생긴 중세부터 시작하여 현재 대학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 새로운 것은 없다. 중세의 볼로냐(Bologna) 대학, 살레르노(Salerno) 대학, 파리(Paris) 대학들, 르네상스시기 옥스퍼드(Oxford)나 캠브리지(Cambridge), 근대의 베를린(Berlin) 대학과 현대의 하버드(Harvard) 대학 등은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대학이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며(김철 2006a; 2006b), 그런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진리탐구의 사명을 통한 교육, 연구, 봉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교육이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1)기업과 자본논리에 의한 대학 공공성의 약화, 2)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규범에 대한 교육철학(이념/사명/책임)의 부재와 약화가

다(고부용 2010<sup>1)</sup>; 김누리 2010; 안병진 2011, 54). 특히, 후자인 대학 교육철학의 부재와 약화는 중앙대 재단의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시절인 2004년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대학이 전인교육의 장, 학문의 전당이라는 헛소리는 이미 옛 이야기다. 이제는 ‘직업교육소’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학교육이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취업인력 양성소로 전락해야 하는가? 대학교육이 학문탐구와 진리 및 봉사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건강한 시민육성의 사명은 포기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논자는 ‘아니오’라고 답하고자 한다.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단지 취업을 위한 증명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목표와 역할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활성화될 필요성이 당위적·이상주의적으로 제시된다면 그 대안적 방향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논자는 우선 변화된 시대상황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의 도래는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에게도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위기요소로서 세계화는 일국적 차원의 국민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패러다임에 큰 타격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의 기회요소로서 초국가적인 지구시민사회와 학문간 융·복합 그리고 학문과 실천 간의 소통 등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세계화는 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제기되는 새로운 지구통치양식인 ‘글

1) 고부용 중앙대 교수는 ‘한국 대학의 기업화’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국 대학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짚는다.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미국 대학은 사립대학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연구·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돈을 끌어들이거나, 아예 스스로 기업이 되어 돈을 버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sup>2)</sup>에 대학도 다른 행위자인 국가, 초국가기구, INGOs, NGO, 정당들과 함께 국제정치이론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규범과 역할(norm and role)을 통해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의 형성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1980년대 후반 국제정치학 이론계에 본격적으로 출현한 이래, 다양한 단계의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중요한 이론적 갈래로 자리 잡았다. 구성주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변수들인 규범, 정체성, 문화, 상호이해, 과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행위자와 구조, 혹은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에 따라 국제정치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Wendt 1999). 구성주의에서 국제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관념(idea)과 규범(norm)이다. 이 관념과 규범은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물리적인 힘’(force)도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익’(interests)도 아닌 ‘공유된 인식’(관념/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성’(legitimacy)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에서 국제관계의 구조와 국가 이익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새로운 규범과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면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결국 새로운 국제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규범창출능력과 사회적 실천을 중요하게 강조한다(채진원 2011).

특히, 새로운 규범으로서 대학교육의 이념<sup>3)</sup>이 중요하다. 이것과

2)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가가 국가 이외의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인 초국가적 지역기구, 국제기구, IGO, INGOs,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자신이 독점해왔던 권력과 권위를 위임·분산시킴으로써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협치(協治)형태를 말한다(Pierr & Peters 2000; Kooiman 2003).

3) 대학이념의 개념에 대해 김종철(1979, 446)은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일관된 사고방식을 뜻하고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 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존립양식을 규정하는 근본요소”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대학의 이념(idea of university)은 대학의 이상(ideal of university), 대학의 사명(mission of

역할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기구인 2010년 11월에 출범한 UN Academic Impact(UNAI)<sup>4)</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AI는 경제, 사회적 발전과 세계평화 진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 세계 고등교육 기관과 교류 협력하면서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지도자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 고등교육기관에 UN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제안한 뒤 2년여 동안 UNAI 설립을 추진해왔다. UNAI는 “경제 · 사회적 발전과 세계평화 수호에 고등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The critical role of higher education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for world peace is widely acknowledged.)”,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고등교육 지도자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40여 개 파트너 기관(Partner Organizations)과 100여 개국 675개 회원교가 가입해 있다. UNAI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각종 지구의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10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세계의 대학들이 실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①유엔헌장의 원칙들을 증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 제공 ②인권,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신장 ③성, 인종, 종교, 민족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 ④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⑤세계 전역에 고등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능력 제고 ⑥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 양성 ⑦교육을 통한 평화와 분쟁해결 달성 ⑧교육을 통한 세계 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⑨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인식 제고 ⑩교육을 통한 문명간 대화와 이해, 관용 증진.

상술한 문제제기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은 정체

university), 대학의 목적(purpose of university), 대학의 기능(function of university) 또는 대학의 효용성(uses of university)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김철 2006).

4) <http://academicimpact.org/index.php>, 2013/01/10.

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성’의 탄생에 주목하여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제시하며, 그것의 맹아적인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보고,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오늘날의 대학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합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원과 역사적 전통으로 돌아가서 성찰하는 즉,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옛것에서 새것을 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이석우 1998).

이를 위해 첫째, 우선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이념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놓고 중세 대학부터 현대 대학까지 벌여온 논쟁점을 역사적 변천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제II장). 둘째, 오늘날 대학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는 배경에는 세계화라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요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것이 교육에 주는 영향력 즉,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살펴본다. 특히, 기회요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필요적 근거로서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글로벌 시민성’의 등장을 중요하게 파악한다(제III장). 셋째, 세계화가 창조하는 ‘글로벌 시민성’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방향성으로 시민교육 등을 제시해보고, 그것의 맹아적 실천사례와 유의미성을 검토한다(제IV장). 마지막으로 전체를 요약하고 논문의 한계와 과제를 설정한다(제V장).

## II. 대학교육의 역사적 전개: 대학의 기원과 이념의 변천

### 1. 대학의 기원과 변천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서 대학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법의 하나는 첫째, 대학이 서양 중세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대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워진 것’(making down)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라나 형성된 것’(growing up)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이석우 1998, 33). 오늘날 대학은 진리, 교육, 연구, 봉사과 같은 규범을 주된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산학협동 같은 사회적 필요에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대학의 기능은 12세기 중세 이후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 연속과 단절을 통해 변화해 온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적 맥락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적 의미의 대학은 고대의 아테네에 있었던 아카데미아나 9세기에 샤를마뉴가 세운 카롤링거 궁중학교와 다르게 규모와 제도적인 면에서 중세 대학의 풍토와 토양 속에서 자라고 형성되었다. 현대 대학의 기원은 중세 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대학의 출현은 중세사회의 변화 즉,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같은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방랑하는 지식인들’(wandering scholars)이라 불리던 지식인들은 종교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믿음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뜻에 맞는 지식인과 문화를 찾아 지적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였다(이석우 2008, 40). 특히, 십자군전쟁으로 동서문화가 교류되면서 당시 유럽사회보다 선진문화를 선보였던 동방문화는 서구의 지식사회를 자극하게 되면서 12, 13세기에 이르러 도시 발전과 함께 도처에 대학들이 생겨나게 되었다(오성삼 1999).

중세대학의 기원으로는 11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탈리아의 살레르노(Salerno) 대학과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볼로냐(Bologna) 대학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Paris) 대학 등이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는 예비과정으로 대개 고대로부터 중시돼온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등의 칠자유과(seven liberal arts)와 철학 중심의 인문학부와 신학, 법학, 의학을 하는 3개의 전문학부를 두어 총 4개 학부로 운영하였다. 이들 대학의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필기와 토론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토론시에는 주로 주제를 제시하고 반론을 전개시켜 결론을 이끌어 내는 형식논리학의 3단 논법을 사용하였다(오성삼 1999, 13).

이렇듯, 중세대학의 기원으로 간주되는 이들 세 대학들이 운영했던 4개 학부의 강의내용을 볼 때, 이것은 그동안 중세 대학발생과 출현의 동인(動因)을 놓고 학계에서 벌어진 논쟁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계는 대학발생의 원인에 대해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의견을 놓고 논쟁해왔다. 첫째는 대학이 순수 학문적 동기보다는 직업훈련(professional vocation)과 직업적 의도라는 실용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대표적으로 『13·14세기의 파리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썼던 레프(G. Leff)에 의해서 주장된다. 둘째는 대학의 기원을 지식과 학문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진보적 열정에서 설명하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대표자는 『중세유럽대학사』의 저자인 래시달(H. Rashdall)이다. 셋째는 대학출현의 성격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계층이익의 대변기구로 설명하려는 시각이다. 즉, 대학에서 학습되었던 지식이 당시 지배자에게 봉사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시각의 대표자는 『중세대학의 기원』을 쓴 그룬투만(H. Grundmann)이다. 앞서 설명된 세 가지 설 모두는 대학의 출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각자 다른 입장에서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일 요인만으로는 대학의 발생과 출현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했던 대학이 위에서부터 ‘세워진 것’(making down)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라나 형성된 것’(growing up)이라는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절충적인 시각의 유의미성을 얻을 수 있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먼저 생기고 인간들이 이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그것의 결과물로서 대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대학의 발생 원인을 순수 학문적 열정에 두건, 실용성에 두건 시기에 따라 시차

를 두고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중세 대학의 초기는 당연히 순수 학문적 열정과 지식탐구에 대한 사랑이 강했고, 점차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훈련 등의 실용적 목적도 중시되었다. 중세대학의 발생에 대해 ‘자라나 형성된 것’(growing up)이라는 접근법이 주는 시사점은, 오늘날 대학이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 때문에 왕왕 중세대학의 출발을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경향에 비추어서 사회구조적 접근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경계하고 인간과 제도 그리고 순수학문과 실용을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이석우 2008, 54).

따라서 중세 대학의 기원은 거의 자연발생적이었다. 그 성립형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밑으로부터 자생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대학의 경우, 즉 ‘자라나 형성된 것’(growing up)의 사례로 볼로냐, 파리, 살레르노,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이들로부터 분가해 나간 파도바 대학, 오를레앙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등의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세워진 대학의 사례 즉, ‘세워진 것’(making down)으로 관현이나 교황에 의해 세워진 대학들로 1224년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세운 나폴리 대학, 1229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세운 텔루즈 대학, 카를 4세에 의해 세워진 프라하 대학 등이다(이석우 2008, 61).

상술한 바가 의미하는 것은 초기 중세대학들은 대체로 위로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직접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과 진리탐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라는 일종의 길드와 같은 동업조합을 형성해 교회나 국가 또는 도시로부터 공인을 받아 설립되어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 중세대학이 동업조합의

5) 초기의 중세 대학들은 교정(campus)을 갖고 있지 않았다. 강의는 교회나 주택과 같이 강의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열렸다. 즉, 초기 중세 대학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조합으로 연합된 개인들의 집합이었다. 중세

형태로 출발했다는 것은 그들이 종교와 국가 및 도시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나름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의 중세대학들은 대체로 오늘날 대학처럼 취업에 대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와 지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학문탐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의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라는 용어는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우니베르시타스는 학생과 교수들이 중세의 길드(guild, corporation)적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고 협력하는 일종의 자치적인 조합을 의미한다. 중세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이 각각 참여하는 동업조합형태로 출발하여 마스터(master)를 정점으로 하는 장인조직의 직급과 유사한 학위체제(bachelor, master, doctor)를 발달시켰고, 자치권을 확보한 하나의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발전하였다. 중세대학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네이션(nation)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된 동향단(natio)을 조직하거나, 패컬티(faculty)의 어원이 된 교수단(facultus)을 교수들이 조직하여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각 학과분야가 형성되고 그것에 따라 학과의 제도와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란 말은 어떤 집단의 위치 또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강하였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시설 또는 장소적 의미의 대학을 가리킬 경우에는 '스투디움 제네랄레'(studium generale)가 더 근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스투디움 제네랄레는 모든 과목이 가르쳐지는 장소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여드는 시설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이석우 2008, 65-68).

대학은 교원의 급료를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교원을 학생조합이 고용하고 학생조합이 교원의 급료를 지급하는 볼로냐 대학교와 같은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교회기관이 교원을 고용하고 급료를 부담하는 파리 대학교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왕(중앙정부)이나 지방정부에 의해 대학교의 운영이 지원되는 형태였다(이석우 2008).

대학은 중세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기간(1500년부터 1790년까지) 동안 137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북부유럽 및 식민지인 아메리카대륙에도 대학이 보급되어 라틴아메리카에 선교의 목적으로 대학이 세워지고 북아메리카에서도 17세기 이후 하버드, 예일 등의 칼리지들이 설립되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종교분쟁은 개신교 국가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의 기관망을 구축하게 하였고, 카톨릭도 예수회 등을 중심으로 변방에 대학을 세우고 교육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쇄신을 기하였다. 근대대학들에서는 중세적 보편성을 벗어나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 나타났다는 점, 보다 엄격한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학수학자의 사회계층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절대주의의 성장, 18세기 계몽전제군주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가 대학의 졸업자들을 사법직, 성직에 직접적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샤를 1999, 61-64).

중세대학의 특징은 17세기에 절대권력을 지닌 군주와 국가권력의 출현으로 대학은 진리탐구와 교육이 아닌 수동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기능적인 기관으로 전락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도야(陶冶) 등이 대학교육의 특징으로 등장하였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창시자인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는 대학의 본질을 '고독과 자유'로 표현하면서, 대학은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고독하고 자유로운 교수(教授)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강조하였다(살레 1999; 오성삼 1999, 35).

## 2. 근대 대학이념의 변천 : 학문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의 긴장

18-19세기 민족국가의 출현은 대학 발전에 새로운 양상을 띠게 하였다. 베를린 대학은 1810년에 독일에서 창립된 것으로 근대 대학의 효시를 이루었고 대학 발달사상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독일에서 대학은 공동생활의 장소인 동시에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베를린 대학은 대학의 자유를 중추로 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1808년에 제국대학을 설립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겸하게 하였다. 그 후에 독특한 관료조직과 국가시험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은 주로 관리의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은 오랫동안 귀족계급을 중심으로 인격 교육을 존중하는 학풍을 가짐으로써 신사도(紳士道)의 함양과 지도자(指導者)의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런던 대학(1836)을 비롯하여 신제대학이 설립됨으로써 대학은 평민화가 되었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다. 반면 영국의 대학은 신사교육, 인격교육, 지도자 양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이광주 1997).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1636)을 비롯한 초기의 대학은 영국 대학의 모형을 본받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학은 19세기 초부터 독일 대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원(大學院) 제도는 19세기 이후에 독일 대학의 영향을 받아 발달된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대학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학교육은 학문의 실용성(實用性)을 강조하는 학풍이 확립되었고, 대학의 문호도 크게 개방되었다. 특히 대학의 문호 개방은 시민적 교양을 강조하는 미국의 독특한 환경에서 20세기에는 미국 특유의 초급 대학(community college)이 발전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대학은 각국의 독특한 배경에 따라 발전되었다. 오늘날 대학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그 성격과 기능은 국가에 따라서 형태와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이광주 1997).

근대 대학의 모델이 되었던 중세말기의 대학은 처음부터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것은 연구의 중심인 신학, 법학, 의학 등을 연구하는 곳에서 출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김종철 1979; 오성삼 1999, 42). 중세 이후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주의와 근대 국민국가를 지나오는 시기 동안 대학이 교육의 방향성을 놓고 마주했던 큰 쟁점사상은 첫째,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증대하는 국가권력과 외부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대학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이념상이었다.

첫째의 문제에서 대학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둘째의 문제에서 대학교육이 국가정책의 예측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중세 대학의 출현 이후 국가권력이 대학의 위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대학교육의 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단된 적은 없으며, 지구화와 후기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위상은 명과 암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이석우 1988, 393).

르네상스 시기의 대학교육은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인문주의 운동의 흐름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문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학문을 위한 학문 즉, 학문주의 정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세 후기 대학들이 지나치게 성직자, 관료, 의사, 법률가들을 배출하는 도구적인 실용학문주의로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학문주의와 도구적 실용주의간의 갈등에서 중세후기시대의 대학교육은 전자보다 후자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비판이다. 종교개혁 시대의 대학교육은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고, 인문학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시기에 대학교육은 자연과학 교과과정을 인문주의 교육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절대주의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의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 이

유는 대학이 국가의 기능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계몽적인 사상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대학교육은 행정학, 응용과학, 과학농업, 공공재정 같은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였다. 특히, 산업시대에서 대학은 국민국가의 건설과 산업사회 부흥의 필요에 따라 국가와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어, 순수 학문주의보다는 국가와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도구적인 실용주의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이석우 1988, 394-402; 이광주 2008).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도구적인 실용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대학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순수 학문주의간의 균형을 잡으려는 대학교육의 시도는 계속되었다. 19세기 프로이센의 교유개혁을 담당하고 베를린 대학의 설립자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대학교육의 위상과 교육이념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훔볼트(Humbolt)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이라는 통일적인 대학교육의 이념을 확립하고, 대학의 본질을 ‘고독’과 ‘자유’로 표현하면서, 대학은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고독하고 자유로운 교수(教授)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즉,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훔볼트가 강조한 연구와 교육과 함께 현대 대학의 보편적 이념의 하나인 ‘사회봉사’는 대학이 속한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봉사함으로써 사회의 제반 분야를 개선하고 인류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영향을 받은 이념으로서, 19세기 중반에 미국 주립대학의 실용교육이념으로부터 더욱 촉진되었다. 이것은 농업교육과 공업교육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의 사용허가를 골자로 한 ‘모릴법’(Morill ACT)에 의해 출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과 발효로 오늘날의 주립대학이 탄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학들도 광활한 땅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학과를 설치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김철 2010).

이렇듯 ‘사회봉사’는 학문연구,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본질을 규

정하는 대학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20세기가 되자 미국의 대학은 상업주의와 실리적, 실용적 직업훈련에 치우친 나머지 본래 대학의 이념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 시카고대학 총장이었던 허친스(Hutchins)는 이를 비판하며, 대학은 학자들이 학문을 향한 공통적인 대화를 일삼는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의 센터로서 독자적·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삶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그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진리탐구와 사회봉사, 전인적 지도자 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금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영향력은 1945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인 코넨트(Conant J. B)에게도 전수되어 인문주의교양보다 더 넓은 사회, 자연의 기초지식까지 포함된 ‘일반교양교육’(general education)<sup>6)</sup>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최선영 1996; 강영계 1999; 김호진 2004; 김철 2006a; 김철 2006b; 송유진 2011).

특히, 이러한 그의 교육이념은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인 지구화, 정보화, 후기산업화로 표현되는 전환기적인 시대상황에 맞춰 실용주의를 표방한 많은 미국의 대학들 대학에게 실용적인 것을 위해 대학 본래의 기능인 진리탐구의 기능을 소홀히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하버드 대학에서의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의 교과과정 개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인보다는 ‘지혜로운 교양인’을 강화하려는 흐름에서도 엿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교육이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상아탑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국가주의와 산업주의시대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고, 세계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에 부합하는 보다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촉진하려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6) 여기서 일반교양교육이란 첫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며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며, 둘째, 편협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객관적인 열린 마음을 가진 자유화된 인간을 형성하는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말한다.

### III. 대학교육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과 글로벌 시민성의 등장

#### 1. 현대 대학교육에 대한 세계화의 이중적 영향력

1970년대 초중반 세계자본주의가 금융위기에 빠지고 경제적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는 교육정책이 크게 부상하면서 ‘대학의 시장화’와 ‘대학의 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것의 결과로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기업화가 촉진되었다(Brown 2011).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 정책은 적극적 사회복지 실현으로 인한 국가 재정 지원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펼칠 만큼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많은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개선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개선요구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제시로 구체화된다.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우선 변화된 시대상황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에 주목할 것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의 도래는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에게도 위기요소와 기회요소를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위기요소로서 세계화는 일국적 차원의 국민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큰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의 기회요소로서 세계화는 초국가적인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형성과 학문간 융·복합 실천 그리고 학문과 실천 간의 소통 등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

공해 주는 경향도 있다.

#### 1)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세계화란 국가의 배타적 경계선이 분명히 지켜지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sm)와 다르게 각 국가들 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cross-border), 새로 생겨나는 ‘지구시민적 정체성’(global citizen identity)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과 생활의 단위가 초국가적인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대전환적인 현상과 이러한 경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Held 1999, 16; Giddens 1990; Scholte 2000, 44-46; Baylis and Smith 2005).

이러한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세계화는 지구적인 수준에서 국가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의 상호의존성과 교류를 확대시키고, 각 부문과 영역 및 수준간의 경계 넘나들기(crossing-border)를 심화시킨다. 둘째, 이러한 경계 넘나들기는 종전의 사회균열구조와 절대적인 국민주권개념에 타격을 가하면서 ‘국가중심의 통치양식’(mode of government)에서 벗어난 ‘다층적 거버넌스 양식’(mode of multi-lateral governance)을 창출한다.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 양식은 글로벌 수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에서는 지역주의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 그리고 중앙차원에서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지방차원에서는 로컬 거버넌스를 창출한다.

셋째, 세계화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와 세도화(世都化·glurbanization)라는 새로운 흐름을 창출한다. 세방화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국내관계와 국제관계 및 외교관계에 있어 주권국가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과 민간들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세도화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도시화(urbanization)가 합성된 신조어로 세방화가 심화됨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한 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중심성과 자율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홍익표·진시원 2009).

### 2) 위기요소: 국민국가와 산업 중심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타격

그동안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국민국가와 산업생산 중심적인 교육패러다임의 특징은 국민국가 건설기와 산업화시기에 요구되는 중앙집권적이고 산업생산에 요구되는 방식대로 전문화(specialization)와 부문화(departmentalization)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문별로 전문화된 지식체계는 지식생산의 주체인 대학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문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안병진 2011, 55).

하지만 국가의 경계가 약해지고, 각 부문과 부문 간에 경계가 초월되어 새로운 지구공동체가 출현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세계화의 도래는 그동안 전문화와 부문화로 상징되는 기존의 교육패러다임과 지식질서에도 타격을 가하게 되어 그것의 적실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적실성의 한계는 학제간·학문간 단절과 소통부재의 부작용으로 작동하여 리얼리티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즉, 각 부문과 영역 간 경계의 약화는 기존의 사회운영원리와 그것에 기초한 학문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동안 학문을 세부 분야로 잘게 쪼개온 그동안의 지배적인 경향과 학문의 정체성에 타격을 가한다. 너무도 세부적으로 나뉜 각 분야에만 머물 경우 지엽적 깊이는 도모할 수 있지만 분야를 넘는 대화가 불가능해져 학문 전체의 포괄성과 통합성은 상실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날로 복잡하게 서로 얽히는데 부분적 지식만을 쌓고 그러한 수준의 지식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면 그 적실성과 효과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3) 기회요소: 새로운 대학교육의 필요성과 역할론 제기

따라서 기존 국가와 산업생산 중심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강력한 타격과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새로운 대학의 역할이 제기된다. 세계화시대의 등장은 대학이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답을 쌓고 순수하고 낭만적인 차원에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고고한 지식을 축적하는 전통적인 상아탑주의에 타격을 가한다. 따라서 '작은 공부'가 아닌 '큰 공부'를 추구하는 대학이 변화

된 시대상황에서 진정한 진리 탐구의 상아탑과 지성의 전당이 되려면, 사회와 답을 쌓고 자기 혼자만 고고하게 놀 것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학문과 학문, 학문과 실천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무단히 교류하며, 치열한 생활현장의 목소리가 대학 안으로 들어올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즉, 대학은 사회적 삶의 현장과 연계되어서 진리, 정의, 자유, 사랑, 봉사 등의 가치들을 실천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들은 결국 대학이 전통적인 상아탑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된 위상과 변화된 사회적 책무에 부응하는데 변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상적·당위적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학은 그동안 소홀했던 교양교육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 2.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성

시민성(civility)이란 시민됨의 자격(qualification)과 소속(belonging) 및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출처인 법적 지위(status)와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는 시민권(citizenship)과 다르게 시민의 자질(disposition)과 덕성(virtue) 그리고 시민행동(action)과 시민의식(manner)에 관한 것이다. 시민성은 한마디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덕성'을 말한다. 이는 개별적인 수준의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러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한다. 즉, 시민성은 시민으로서 갖는 지위와 권리, 의무와 더불어 시민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생활양식(생활습관과 태도) 내지 덕성 및 시민의식을 포함한다. 특히, 시민의식은 독립적이고 순수한 머릿속의 '의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활습관과 생활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몸과 마음 의식'을 말한다.<sup>7)</sup>

7)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방향성은 단순한 의식변화(의식화)가 아니라 생활습관과 생활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현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시민성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앞서 세계화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과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체성이 국가의 정체성을 넘어 지구시민적 정체성(global citizen identity)으로 점차 변화가면서 동시에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와 '세도화'(世都化·glurbanization)의 정체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같이 다층적인 수준의 시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은 지방수준에서 주민/시민 정체성과 국가수준에서 국민/시민정체성 그리고 지역과 세계수준에서 글로벌 시민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시민성은 개인이 지방과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이것의 경계를 넘어서 시민성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추세와 경향은 종래 특정 국가의 시민성을 강조하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을 넘어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촉진한다. 경제적 통합의 증대와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이 증대하여 다문화(multi-culture) 사회가 도래하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적 연합 등의 지구적 현상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우리사회를 지구시민사회로 변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구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 글로벌 시민성(global civility)을 요구한다(김태완 2010).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수준의 시민성을 소유한 인간형의 특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국가사회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인 지구촌이 있다는 것을

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토크빌은 이러한 미국인의 생활습관과 태도를 '마음의 습속'(habits of the heart)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리고 『지각의 현상학』을 저술한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몸 의식'이라 표현했다.

인식하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이다. 둘째,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셋째,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평등,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다. 넷째,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구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시민성(시민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으로 ①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 ②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③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④비판적 사고능력 ⑤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⑥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⑦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⑧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Cogan 2000).

## IV. 글로벌 시민성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방향성

### 1.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

#### 1) 국가와 산업생산 중심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그동안 우리 대학교육은 급속한 근대국가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전문성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를 지나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단순히 전문화되고 부문화된 것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융·복합하여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갖는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시민적 덕성

을 두루 갖춘 ‘존엄한 인격체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갖는 ‘존엄한 인재’(dignity talent)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존엄’은 ‘덕성(virtu)과 실천력을 갖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수월성의 전문성’을 뜻하는 수월성(excellence)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학교육의 위기상황은 여전히 국가건설기와 산업시대의 교육목표인 노동을 잘 하는 인간을 배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시교육의 연장에서 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 낸 우울한 결과라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즉, 세계화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계속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대학은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면 그 핵심은 첫째, 글로벌 시민성을 육성하는 교양교육의 강화이며, 둘째, 학문간 융복합의 활성화이다. 셋째, 학문과 실천 간의 소통이다.

## 2) 글로벌 시민육성을 위한 교양교육과 시민교육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핵심으로 글로벌 시민 육성교육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민교육은 지구촌의 주요 이슈와 문제 이해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문화교육, 미래교육, 개발 교육, 다양성 교육 등을 포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인과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 엄청나게 복잡한 지구촌의 현상을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윈주의를 함양한다. 넷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 감정 이입을 통하여 전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지구시민의식을 갖게 한다. 다섯째, 현재의 전 지구적 문제들을 지구시민의 공동적 노력을 통

해 해결 할 수 있는 신념을 키운다(Joyce & Nicolson 1979, 95-109).

## 3) 학문간 융·복합의 활성화

세계화시대의 학문은 경계의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한 전문지식을 넘어, 경계를 초월하는 융·복합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세계화시대의 대학은 융·복합의 활성화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문간 경계 넘기(transdisciplinary)가 활성화되어야 한다(안병진 2011). 따라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은 학문간 경계 가로지르기 또는 융·복합 교육이다. 이러한 학문간 경계가로지기와 융·복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보면 분명해진다. 정치와 문화라는 거대한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도 문학, 역사학, 철학 등 인문학은 물론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동원될 필요가 있다. 기존 분야를 뛰어넘는 학문간 대화를 통해 융합적 시각을 갖춰야 정치와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학문과 사회적 실천 간의 소통

대학교육에 있어 대학 본연의 가치나 사명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취업은 양질의 교육에 따라오는 결과물이어야지, 그것이 거꾸로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학은 단순히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지성인을 양성하는 진짜 실용기관이 되어야 한다.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 합리적 사고력을 형성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성인을 배출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시대의 대학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회와 공동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안을 찾고 제시함으로써 학문과 사회적 실천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요구하는 주요 개념과 이론이, 이미 정답이 있는 결과론적인 입

장에서 현상을 끼워 맞추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시민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삶의 고통과 필요 및 문제점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점차 개념과 이론으로 나아가는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ical method)<sup>8)</sup>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 2. 사례 : 하버드 교양대학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양성소로 전락하는 분위기속에서, 대학이 대학 본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사명을 지켜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하버드대와 한국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사례는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하버드 대학교

2007년 5월 15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양대학(The Faculty of Arts and Sciences)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의 교양필수과목 교과개정을 개편하였다. 개편된 교양필수과목 8개 부문은 ①문화와 신앙 ②미학해석의 이해 ③경험적 사고 ④윤리적 사고 ⑤생명과학 ⑥물리적 세계의 과학 ⑦세계의 다양한 사회 ⑧세계 속의 미국 등이다(Harvard University 2007).

8) 현상학적 방법론은 개념과 이론적 지식 이전에 우선하는 생활세계(life world)를 인간의 지각활동(perception)을 통해 풍부하게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인간의 지각활동은 인간을 둘러싼 주변 환경(surrounding world)과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시킴으로써 주관주의적 지식체계(관념론/주관론)와 객관주의적 지식체계(유물론/대상론)간 분리의 문제점을 극복해보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방법론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지식, 학문과 학문 간의 전문화와 부문화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소외문제를 통합하고 포괄함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현상학적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는 김홍우(1999)와 메를로 폰티(2002) 참조.

<표 1> 새로운 하버드 대학교 교양필수 과목

새로운 교양필수 과목	교육목표
문화와 신앙	문화와 신앙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능력 제고
미학해석의 이해	문화에 대한 심미적 반응 및 이해 능력 개발
경험적 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갈등을 대하는 방법 교육
윤리적 사고	자신과 다른 가치체계를 만날 때의 윤리적 갈등 극복
생활과학	교실 밖에서 마주칠 생활과학이 기술개념 이해
물리적 세계의 과학	졸업 후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과학상식 교육
세계의 다양한 사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협성을 극복
세계 속의 미국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연계를 이해

\*출처: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http://curriculumreform.org/harvard-university-task-force-on-general-education-report/>, 2012/01/01.

<표 1>과 같이, 새로 개편된 하버드대의 교과과정은 민감한 종교·문화 문제와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적인 편협한 지방색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버드대의 개편된 교양필수과목 커리큘럼은 기존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학문적 주제에만 집중돼 변화된 시대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교과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의 다양한 사회’(societies of the world) 과목이다. 하버드대 학부생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이 유일 강대국인 전례 없는 시대에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속에서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하버드대는 필수과목으로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와 신앙’(culture and belief)을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하버드대가 비종교 기관이지만 종교는 학생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버드대가 ‘윤리적 사고’(Ethical Reasoning)를 포함한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협상을 하거나, 가족 내 딜레마를 해결하는 등의 결정에 늘 윤리적인 이슈가 연관되므로 이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대학이 ‘물리적 세계의 과학’(Science of the Physical Universe)을 포함한 이유는 과학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화석연료 의존, 우주 탐사, 핵무기 확산, 기후 변화, 인터넷 시대의 각종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하버드대가 이러한 교양필수과목의 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교양교육의 강화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능동성 향상에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변화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인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대학당국은 교양 과목이 단순한 학점 취득 수준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공과목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수와 연계토록 권고함으로써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다.

## 2)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경희대학교는 2011학년도 봄 학기부터 교양교육 전담 기구인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학부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였다. 교양교육 개편의 핵심은 <그림 1>처럼, ①교양교육 전담 기구인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 설립 ②신입생 공통필수 ‘중핵교과’ 2과목 신설 ③7개 주제영역 가운데 5개 영역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배분이수교과제’ 도입 ④‘시민교육 교과’ 신설 ⑤사회봉사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그림 1>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과과정의 네 트랙



\*출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홈페이지

후마니타스 칼리지로 표현되는 경희대의 새 교과과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첫 째는 신입생 전체가 전공이나 소속 캠퍼스에 상관없이 ‘중핵(core)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의 창학 이념과 비전이 녹아들어가 있는 중핵과목은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I, II>이라는 교재로 수업이 운영된다. 둘째는 난립하는 교양과목들을 60-70여개의 과목으로 정리하고, 이를 과목군으로 나누어 배분이수과목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영역별 과목 이수제와 유사하여 7-8개의 영역 중 4-5개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역들의 학제적 주제는 생명, 자연과학, 의미와 상징, 시민과 사회, 평화와 윤리, 세계와 문화다양성, 논리와 분석 등이다. 셋째는 교양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회공헌 과목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실천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

회공헌에 관계되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시민교육 과목 혹은 과목군을 교양과정에서 제공한다. 특히, 사회 공헌과 실천을 위해 경희대 미래문명원, 경희대 Global Service Corps (GSC)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활용한다.

경희대는 창학 당시부터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학원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평화로운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확립했으며 ‘세계시민’을 키우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희대의 교훈은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으로 구체화되었다. 시민교육 교과목은 경희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교훈을 현장활동과 체험교육을 통해 구체화시킨 프로그램이다. 즉, 시민교육 교과목은 이론과 실천의 소통을 위해 시민교육과 현장활동을 연계시켰다. 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그것의 경험과 체험담을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희대의 이러한 시도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 교육 차원에서 찾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특별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교과목의 효과는 있는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 <표 2>는 2011년 1학기 시민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에 의하면, 시민교육 수강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발표력 향상’, ‘자신감 증대’, ‘타인과의 소통’, ‘자신의 과거 삶 되돌아보기’, ‘사회와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체인식’, ‘각종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출범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출발점으로서의 시민교육 교과목의 효과는 다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 시민교육을 수강한 후 학생들의 변화

그룹	내용
1 그룹	<p>“원래 발표나 토론 수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발표를 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웠다.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들과 친밀해졌다. ...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시간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로 수업을 들은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p> <p>“나의 서울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 했으며,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의 가치 즉,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크게 깨달았다. 삶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혼자 힘만으로는 짐 그리고 항상 이 세상 은 바쁘게 움직이며 그 속에서의 다른 형태의 삶이 여러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가치를 배웠다.”</p> <p>“우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매 시간마다 다른 학생들 앞에 나와서 짧지만 내 의견이 들어가 있는 코멘트를 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데 매번 발표를 하다 보니 내 의견을 조금 더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다른 수업 발표 때도 전공수업 때 내 그림에 대한 작품 설명을 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기 놀리지 않고 내 작품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p> <p>“생활패턴 전부를 바꾼 셈이다. 언제나 남는 시간에 게임 밖에 안 하던 내가 매주 정기 교육봉사를 나가고, 격주로 양로원과 요양원에 다니고, 매달 조 고아원을 다니게 되었다.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사교회로도 가장 큰 변화에 속한다.”</p> <p>“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를 들어온 후 잠시 방향을 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더욱 행복해진 것 같다.”</p> <p>“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p> <p>“이론적인 것을 넘어 몸소 실천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장애인분들을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p> <p>“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사회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관점이 바뀐 것 같다.”</p> <p>“활동을 통해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왔던 세월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그 때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는지 혹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p> <p>“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내 주위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여태껏 나는 정말 나쁜 보고 살아왔던 것 같다.”</p>

2 그룹	<p>“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즐거워졌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p> <p>“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친 것이 제게 나타난 가장 변화입니다.”</p> <p>“봉사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봉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보살핀다. 봉사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짐작이 간다.”</p>
3 그룹	<p>“나 스스로 편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p> <p>“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사회봉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p>
4 그룹	<p>“청소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p> <p>“발표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 사회성이 많이 향상되었다.”</p> <p>“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내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p> <p>“타인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앞으로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도록 살고 싶다.”</p>

\* 출처: 채진원, 2011, “시민교육 1학기 평가와 과제:

학생들의 반응의식과 시사점 논의” 발제문(7.16).

\*\* 질문: 시민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을 수강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 V. 결론

이 글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언제부터인가 건강한 시민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자본이 요구하는 인간형을 배출하는 취업양성 교육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시민성을 찾는 가운데 이러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글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대학의 기원과 대학교육의 변천사를 통해, 즉 중세 대학이후 현재까지 포기되지 않는 순수학문주의와 도구적 실용주의간의 팽팽한 긴장을 통해 대학의 사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의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대학 시민교육의 맹아적인 사례를 하버드 대학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찾아보고, 그것의 실천 가능성과 유의미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대학교육의 배경이 대체로 자본과 대학당국의 편향적인 교육철학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에서 출발한 만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 자체가 어찌 보면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당위적인 견해로 그칠 수도 있다. 또한 논리전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등 비약적인 논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적, 이상적 시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이 의식적으로 당위성, 이상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위적 이상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성을 찾아 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비록 이상적인 목표와 방향 쪽으로 만족스럽게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비판들은 추후 많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소개된 하버드 대학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추후 많은 사례들이 소개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이론의 한 조류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시각, 즉 새로운 규범과 역할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힘과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세계화시대에 부합

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기존 국가와 산업생산 중심 교육패러다임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 교육의 적실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종전의 교육패러다임 대신에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흐름을 대학이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학이 세계화시대에 부합하여 글로벌 시민성을 육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대학의 글로벌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그리고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설립자와 대학총장들의 인식변화와 변화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가면서 새로운 전범을 만들고 있는 하버드 대학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선도적 시도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학 당국, 교수,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의 더 많은 공감대 형성과 헌신적 노력이 절실하다.

## < 참고문헌 >

- 강영계, 1999, “대학의 이념과 인문학의 미래지향적 방향설정.” 『인문과학논총』 제32집, pp. 169-181.
- 고부웅, 2010, “한국 대학의 기업화.” 『역사비평』 92호, pp. 16-42.
- 김누리, 2010, “시평: 영혼을 팔아버린 대학 -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2)”, 영미문학연구회,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제28권, pp. 303-320.
- 김종철, 1979, 『한국 고등교육 연구』, 서울: 배영사.
- 김철, 2006a,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pp. 19-36.
- \_\_\_\_\_, 2006b, “대학이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21세기 대학이념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2호, pp. 25-46.
- \_\_\_\_\_, 2010, “위기에 직면한 21세기의 대학개혁.” 경기대 대학원신문(3월 3일).
- 김태완, 2010, “글로벌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워크샵 발제문(서울, 4월 28일).
- 김호진, 2004, 『지식혁명 시대의 교육과 대학』, 서울: 박영사.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메를로 폰티 저 · 류의근 역, 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송유진, 2011,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교육철학』 제43집, pp. 131-160.
- 안병진, 2011, “21세기 고등교육의 메가트렌드”, 『새로운 명문의 조건』,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 오성삼, 1999, 『세계 대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광주, 1997, 『대학사』, 서울: 민음사.
- 이광주, 2008, 『대학의 역사』, 서울: 살림.
- 이석우, 1998,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채진원, 2011, “시민교육 1학기 평가와 과제: 학생들의 반응의식과 시사점 논의”, 시민교육워크숍 발제문(서울, 7월 16일).

채진원, 2013, “지구화시대 동북아 상호인식의 현황과 구성주의적 과제”, 미출간.

최선영, 1996, “대학이념의 변천”,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제53집, pp. 659-676.

크리스토프 샤를 저·김정인 역, 1999,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홍익표·진시원, 2009, 『세계화시대의 정치학』, 서울: 오름 출판사.

Baylis, J. and S. Smith, (eds). 2005,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Roger(ed), 2011, *Higher Education and the Marke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Cogan, J. J., 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EAI, 2007, “국내대학의 위기와 조기유학 인식”, [여론브리핑 16-5호].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Harvard University, 2007,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Held, Davi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an Perraton, 1999, *Global Transform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Joice, B. R. and A. M. Nicholson, 1979, *Imperative for global education*. in J. M. Becker(ed.). *Schooling for Global Age*, pp. 95-109.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s.

Pierre, Jon & Guy, 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Y: St. Martin's Press.

Scholte, Jan A., 2000,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N.Y.: Palgrave.

Wendt, A., 1999,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Idea of University Education and Civil Educational Challeng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Chae, Chin-won  
(Humanitas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Education stopped abandon the university its role that foster healthy citizens and improve the emissions that companies with capital needs humanoid job educating becoming reality, and to cultivate civics an important goal of education should be to emphasize the need for an inevitable.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look at the reality of a college education facing a crisis of identity, and is to examine the origin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University in order to try to find a guide into tomorrow by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In other word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tense since the medieval university to the present university does not give up it between a pure academism and tools pragmatism critically. In particular, the modern university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rule that are filed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 form of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 doctrine that 'constructivism' paradigm.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global citizenship', depending on how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has emerged as a new identity, and to present 'civic education' in

the direction of a college education to meet these flow proposed. Subsequently, we will review the best practices of civic education of Harvard University and Humanitas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the feasibility and significance of it.

**Keywords :** University of Identity, University Education,  
Idea of university, Global Civility, Civic Education